

강진군, 고수온 대비 전복가두리 산소공급 총력

무안군, 폭염 대비 경로당
현장점검 실시

강진군이 올해 들어 첫 ‘고수온 예비특보(28℃)’가 연안에 발표됨에 따라 어업인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보 대상에 포함된 강진 연안 수온은 지난 25일 최고수온 28℃를 기록했으며 이는 평년 대비 수온을 한참이나 웃도는 수치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수온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 조만간 전복가두리양식의 한계 수온인 30℃도를 웃돌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복어업인을 대상으로 고수온 대비 양식장 관리 대량 조기출하, 전복 면역력 증대를 위한 먹이중단 등 관련요령 등을 전파하며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고수온에 대응해 전복 관리선 14척을 이용해 가두리주변을 계속적으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상 1일 4시간 이상 선회해 산소 공급량을 늘리고 해수유통을 원활히 해 고수온폐사에 대비하고 있다. 전복먹

이를 공급하지 않아 면역력을 높리고 있으며, 최대한 조기출하에 힘쓰고 있다. 강진군은 산소공급 선박운항을 위한 선박유류비의 일부 금액을 매년 2천만원씩 해마다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3천만원까지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수온 이전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판매·유통에 힘쓰고 먹이공급을 최소화해 양식전복의 온도상승을 예방하고 있다. 양식어업인 안전대책으로 구명조끼 100개, 온열대책으로 얼음조끼, 얼음목도리를 60개를 배포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강진군 위친희 해양수산과장은 “올해는 조기에 장마가 종료되고,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며 고수온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복가두리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운재 기자



강진군이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복가두리 주변 산소공급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로당 내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실내 적정온도 유지 상태, 무더위쉼터 개방 여부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특히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여름철 식중독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며 어르신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힘썼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바쁜 와중에도 경로당을 방문해 안부를 살펴줘 감사하다”며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경로당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목포항 청사진 본격화...국가계획 반영 환영



국가 항만계획 반영으로 도약 준비하는 목포항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희)가 물류·산업·관광이 융합된 서남권 핵심 해양거점항만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목포시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에 시가 건의한 핵심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항만 개발 방향과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정된다. 목포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핵심 사업들이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목포항의 기능 고도화는 물론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목포시는 이번 계획 반영을 계기로 항만 경쟁력을 높이고 서남권 해양관광·물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벼 병해충 방제·발작물 가뭄 대응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여름철 벼 병해충 확산과 폭염·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충 방제 지원과 현장 중심의 기술 지도에 나섰다.

함평군은 31일 “농업기술센터가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벼 병해충 방제 대행비를 지원하고 가뭄에 대응한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함평군 농업기술센

터는 벼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벼 재배면적 6,000ha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대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7월 말 기준 1차 방제 대상 3,000ha에 대한 방제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병해충 발생 상황과 벼 생육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병해충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

로 예찰하고, 병해충이 발생한 논에는 ▲등록 약제 사용법 ▲적기 방제요령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따른 발작물 피해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지속될 경우 발작물의 생육 부진과 수량 감소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문수 기자

영암, 폭염 속 장애인 이동권 지키는 맞춤형 햇빛가리개 설치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최근 영암군민회관에서 전동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야외이동을 돕기 위해 장애인 이동보조기 햇빛가리개 설치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를 지원받아 추진됐다. 여름철 전동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동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주행 중 양손으로 방향과 속도를 조작해야 해 우산이나 양산을 사용할 수 없어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불편을 덜고 안

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암군은 K-자원봉사단 전국 리더인 영암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회장 박미숙) 회원 10명과 장애인 10명을 1대 1로 연결해 자외선 차단과 방수 기능을 갖춘 맞춤형 햇빛가리개를 직접 조립·설치했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 따뜻한 반찬 나눔 봉사 실천

남도사랑신안군봉사단(단장 김복숙)은 최근 단원 10여 명과 함께 관내 경로당을 찾아 정성껏 만든 반찬을 전달하는 ‘따뜻한 한끼나눔 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임종을 고려한 반찬 3종을 정성껏 조리한 뒤 압해읍 내 경로당 3곳을 차례로 방문해 반찬을 전달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반찬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날씨도 덥고 거동이 불편해 반찬을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맛있고 정성이 담긴 반찬을 가져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남도사랑신안군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